

국민행복지수와 한국인의 오복



사람 인(人) 여덟자를 쓰면 '人人人人 人人人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라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답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육기관이다. 사람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삶의 질, 사회적 지원 등을 집계한 2021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 한국의 국민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라고 지난달에 발표했다.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에는 오래 사는 수(壽), 풍요롭게 사는 부(富), 심신이 편하게 사는 강녕(康寧), 덕을 쌓으며 사는 유헤더(攸好德),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죽는 고종명(考終命)이라는 오복(五福)이 있다.

첫째, 수(壽)는 국민행복지수의 '기대 수명'이다. 둘째, 부(富)는 국민행복지수의 '국내총생산(GDP)'이다. 셋째, 강녕(康寧)은 국민행복지수의 '삶의 질'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는 일터의 환경과 근무시간은 물론 숨 쉬는 공기의 질을 좌우하는 미세먼지 농도도 포함된다. 넷째, 유헤더(攸好德)는 국민행복지수의 '사회적 지원'을 실천하는 삶이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조직·국가·국제 차원에서 가능하다.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는 '죽음'이고, 자살률은 고종명을 포기한 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유엔의 국민행복지수 요소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오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壽)의 복을 누리려면 맑은 공기와 물과 안전한 식품이 필수적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날보다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날이 더 많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산림이 황폐화되면 공기의 질이 떨어진다. 토양과 바다가 오염되면 맑은 물과 안전한 식품을 구하기 어렵다. 먹거리에 관한 생활 교육과 자연보존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수적이다.

부(富)의 복을 누리려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부를 추구하고 축적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일터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이 합치되는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흑여 자신과 일터에만 이익이 되고 반사회적이거나 반자연적인 일을 하게 되면 부가 화로 바뀔 수 있다. 소명으로서 직업관을 정립할 수 있는 직업철학교육과 일자리를 얻고 발전할 수 있는 첨단기술교육이 필수적이다.

강녕(康寧)의 복을 누리려면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개인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해 스스로 연마할 수 있는 정서교육과 체육교육이 필수적이다. 정서교육에는 음악·미술·연극 등 예술교육이 으뜸이다. 유헤더(攸好德)의 복을 누리려면 사회적으로 덕을 네檠어야 한다. 인성교양교육이 필수적이다. 고종명(考終命)의 복을 누리려면 자살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을 통해 생명존중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 일자리, 사회적 연결망, 정신건강, 웰빙,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공정, 불평등, 빈곤, 회복탄력성 등 삶의 구조와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걸맞게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를 올리는 데 새롭게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1년 6월3일 fn광장

정간공 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

정간공(靖簡公 權傳, 1319~1405) 묘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60-35에 위치한다. 6월 7일 오전 묘역에 도착하니 권병돈 주밀공파와 장수공종중 회장과 권영래 정간공종회 종무위원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옷이 땀으로 다 적셔질 정도로 땀을 뺏が高い 흘리며 묘역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고 있었다. 벌써 2개월째라고 한다.

묘역 봉분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권혁원 대종회 종무위원과 권행완 편집국장도 도착하자마자 같이 잔디 식재 작업을 했다.

"회장님께서 몸소 땀 흘리시며 성역화 사업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자 권병돈 정간공종회 회장은 "누가 회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도 정말 특별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고 하자 "직장생활 할 때도 나이 직위와 무관하게 이신작적(以身作則)"

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2분(권병돈 장수공종중 회장과 권영래 이사)의 종무위원들께서도 따라주셔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정간공 묘역은 3번 벌초를 했는데, 묘역 조경을 하다 보니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가끔 산소에 들러 잠배하는 사람도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둘 필요를 느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간공종회를 통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사업은 잠정적이지만 가칭 "정간공 묘역 성역화 추진사업 계획"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정간공 묘소가 현재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도비각을 복원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성산영당(星山影堂)에 정간공을 주변으로 양촌공(양촌면 편집국장)과 호당공(호당湖堂) 권재권(權在)의 유헌(遺稿)과 유품(遺物) 등 9위의 영정을 봉안하는 문제 등을 장기적인



권병돈 장수공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종회 회장, 권혁원 대종회 이사, 권영래 정간공종회 종무위원, 권순호 매현공종중 고문(원쪽부터)



정간공 묘소 바로 밑에서 잔디 식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계획에 하나하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정간공 실기(實記)를 활용한 장학제도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정간공 실기에 대한 독후감이나 독서감상문을 공모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당선된 후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정간공의 후손 사관생도를 배출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관생도 후손 중에 1할만 종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정간공종중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12)



그러나 우리 사회는 7~80년대부터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욕(老慾)을 넘어 '돈, 권력, 명예'에 올인원을 하는 노추(老醜)에 물들고, 자손에게 그것을 넘겨주지 못해서 다들 안달이다. 그 자손들이 자신 스스로의 근면성실과 꾸준한 노력에 의한 부귀가 아니라면 올바른 삶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분명한 진실은 '그 자손은 꼭 폐가망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주의 욕망은 자손들에게서 미래의 올바른 삶과 진정한 행복을 미리 차압(差押)해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잔인한 짓인 노망(老妄)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한국 공직 후보자 국회정문회에서 이른바 '4대 필수과목'에 침범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별로 많지 않은 기억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유교문화권에서는 경륜과 청렴한 지도자를 송양하며 이를 본받으려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즉 선비사상이나 정신 그리고 그 출처대의(出處大義; 공직에

나아가고 제 때에 책임지고 사직하며 그만두는 정의로움)의 실천을 현대적 가치로 살려내야 한다.

동감(同甲 : 辛酉 ; 1501년생)으로 조선 중기 같은 시대에 조야(朝野)에서 각각 '대로(大老)'로서 칭송을 받으며 살았던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출처관과 그 실천 및 그 사상이 이어온 역사적 인물평에서 서로 약간 다른 견해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조식은 그 출처에서 옳다고 본 려말선조의 길재(吉再, 1353~1419, 호는 治隱)와 중국 후한(後漢)의 엄광(嚴光, BC.37~43AD, 자는 子陵)의 불굴(不屈)과 출처대의를 높게 칭송하고 그들과는 다른 고려 말의 정몽주(鄭夢周, 1337~1392, 호는 圜隱)에 대한 출처 시비가 남명과 퇴계 및 그 양문(兩門)의 제자들의 견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고려 말의 성리학의 전래와 그 도통연원(道統淵源)에 대한 인식과 조은과 애은 사승관계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야은은 고려 우왕(禡王)이 흥(薨; 봉崩)하자 방상(方喪) 3년을 하였고, 어렸을 때(18세 때)의 스승 박분(朴蕡)과 성균관 때의 여러 스승들(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충인, 권근 등) 가운데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서거(逝去)에 대해서만 심상(心喪) 3년을 하였지, 포은 정몽주에 대해서는 그의 출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제갈량(諸葛亮, 181~234)의 유비(劉備, 161~223, 촉한 소열제昭烈帝)에 대한 발신은 높게 평가하나, 남명은 아쉬움을 표하는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는 부분도 차원 높게 재해석을 한 측면은 그의 출처관과 연관하여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살피고자 하신다면, 「권인호, "조선중기 사립파의 사회정치사상", 한길사, 1995(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수정보완)을 73~119쪽] 참조)

선비와 학자 지식인의 출처는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에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안다면 함부로 나아기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잘못된 출처가 요즈음에 와서 이른바 '유명 교수이고 석학' 일수록, 반민중(反民中)적이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독재정부로 국민을 억압하는 세력은 그들을 이용하려고 동조하기를 강요당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들 두 세력은 결과적으로 반역사적으로 인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강의와 학생지도와 사회봉사보다도 보직이나 말으로 하고 정부에서 장관이나 총리직을 주면 사양하거나 부끄러움 하나 없이 거침없이 정치와 벼슬

자리에 나아가 최근의 우리 역사에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무엇을 남겼던가? 이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학자 지식인의 출처의리의 바른 뜻과 책무를 알아야 한다.

요즘 같은 가치관의 훈동과 철학의 부재 및 윤리도덕 의식의 조락(凋落)과 저상(沮喪)은, 특히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율대 교수)의 "조국의 시간" 출판과 '베스트셀러'(3주간 30만부) 신기록과 문재인 대통령의 영국의 G7 초청인과 오스리아·스페인(에스파냐) 순방행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들 나라의 대우 그리고 외교적 성과 및 전 겹찰총장 윤석열의 대선후보 언행과 이른바 'X파일'과 가족(처·장모)의 비리·불법 의혹과 국힘당 대표 이준석의 병역과 스페(유학留學과 경력) 쌓기 특례·위법·불법·편법·뒷배경 등의 시비는 이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환호와 탄식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 황망한 꼴을 당한 심정의 침통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과 진단 그리고 현재와 미래 비전을 위한 진단 등을 과연 언론 매스컴들은 진정으로 공정·공평·정의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그들에게 냉철하게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묻고 반성을 촉구해야 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일차적으로 역사와 사회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배운 자(지식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철학과 정신상태 그리고 출처정의에서 비롯된 것 이 큰 원인이라고 볼 때, 남명 조식의 출처사상에 대한 재조명과 문제의식이 오늘날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일찍이 남명이 제자들에게 말했듯 "고금의 인물들을 두루 논하려면 반드시 그 출처를 본 연후에 그 행사특성을 논해야 한다."면서 출처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하였고, 스스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안동권씨 15개 파(派) 안내

안동권씨는 시조 태사공의 후손으로 10세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5개 파(派)로 분류되어 있으며, 15개 파(派) 이외에는 어떠한 파(派)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종파(宗派)	9	시중공파(侍中公派)
2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10	급사중공파(給事中公派)
3	추밀공파(樞密公派)	11	중윤공파(中允公派)
4	복야공파(僕射公派)	12	군기감공파(軍器監公派)
5	동정공파(同正公派)	13	정조공파(正朝公派)
6	좌윤공파(佐尹公派)	14	호장공파(戶長公派)
7	별장공파(別將公派)	15	검교공파(檢校公派)
8	부정공파(副正公派)		

● 번호는 15개 파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족보편찬회라고 연락하는 사기행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족친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어떤 사람이 대종회라고 사칭하기도 하고, 족친이라고도 사칭하여 족보를 만든다고 족친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며, 족보 발행을 빙자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함부로 확인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를 악용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족친 여러분!

대종회에서는 현재 족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할 계획도 없으며, 발행하여 판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점 주변의 다른 족친들에게도 전파하여 족보 편찬과 관련한 사기행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